

(2026년 9월 29일 화요일 6면)

놀이터는 놀아도 안전은 놀면 안됩니다



송파구의회 박지효 의원
거여1동, 가락2동, 문정1동

본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'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동네를 만들겠다'고 약속했습니다. 오늘은 그 약속과 직결된 문정근린공원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
이곳은 여름철 물놀이시설로도 이용되는 대표적인 놀이공간이지만, 바닥재는 2013년 설치 이후 13년간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습니다. 현재까지 교체 계획이나 관련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. 경기도는 최근 2년간 28억 원을 투입해 13개 시군 42곳의 생활공간 바닥재를 친환경 코르크 소재로 교체하는 시범사업

을 추진했습니다.

이에 첫째, 관내 노후 놀이시설 바닥재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. 둘째, 물놀이시설과 겸용되는 놀이터를 우선 점검해 주십시오. 셋째, 내년도 예산에 노후 바닥재 개선 사업을 반영하고 서울시 보조사업 등 가용 재원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그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바닥부터 안전해야 합니다.